

06 2027학년도 정시

교차지원

되는 곳과 손해 보는 곳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먼저 사실부터	2
02 무엇이 갈리나	3
03 무엇을 확인하나	4
04 그래서 무엇을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지정 · 가산 · 제한 없음** — 셋의 무게가 다릅니다
- ◆ **한쪽으로만 열려 있습니다** — 두 방향의 사정이 다른 까닭
- ◆ **요강에서 볼 네 자리** — **가산점이 잘 안 보이는 자리**입니다
- ◆ **되는가 · 손해인가 · 다닐 만한가** — 앞의 둘은 계산이고 마지막은 아닙니다

01 · 먼저 사실부터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과인데 문과 학과에 써도 되나요?」

대학이 막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막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지 않아도 점수에서 손해를 보게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이 둘을 가르는 것이 교차지원 판단의 전부입니다.

먼저 「문과·이과」라는 구분이 제도에는 없다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수능에서 무엇을 골라 봤는가와 대학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만 있습니다.

대학이 하는 일	어떻게	결과
지정	「수학은 미적분/기하」로 못 박습니다	지원 자체가 안 됩니다
가산	특정 과목에 점수를 더해 줍니다	쓸 수는 있으나 밀립니다
제한 없음	무엇을 봤든 같게 셉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가 2027 수시 요강에서 센 바로는 **최저 문장이 수학을 미적분·기하로 못 박은 자리가 272줄, 15개 대학**입니다. 그리고 **탐구를 과탐으로 지목한 자리가 525줄**입니다.

정시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다만 정시는 요강이 따로이니 정시 요강에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 정시 요강은 따로이며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시 요강을 확인하십시오.

02 · 무엇이 갈리나

두 방향이 다릅니다

교차지원은 **방향에 따라 사정이 다릅니다.**

어느 쪽으로	대체로 어떤가
미적분·과탐 → 인문계	대체로 열려 있습니다. 막는 곳이 드뭅니다
확통·사탐 → 자연계	막히는 곳이 있습니다. 지정·가산이 걸립니다

한쪽으로만 열려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교차지원」이라고 하면 대개 앞엿것을 가리킵니다.

앞엿것이 유리해 보이는 까닭

수학에서 미적분·기하를 본 학생의 표준점수가 대체로 높게 나오는 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백분위여도 표준점수가 높아 인문계 지원에서 유리해집니다.

다만 **이건 그해 시험에 달린 일입니다. 해마다 다르고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이 이것 알고 조정하기도 합니다 — 인문계에 지원할 때 **사탐에 가산**을 주거나 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붙은 뒤가 남습니다

점수 계산에서 유리해도 **4년을 그 전공으로 다닙니다.** 수학·과학을 좋아해서 이과를 골랐는데 점수 때문에 인문계로 가는 것이 맞는지 다른 물음입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자주 보는 것은 「**점수가 아까워서**」 쓴 교차지원이 **1학년에 후회로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출처: 각 대학 정시 요강 및 평가원 성적 산출 방식. 유불리에 대한 설명은 **해마다 달라지는 경향**이며 단정할 수 없습니다.

03 · 무엇을 확인하나

요강의 네 자리

정시 요강에서 **네 자리**를 보시면 교차지원이 되는지 판가름합니다.

#	어디를	무엇을 보나
1	지원 자격	응시 과목을 못 박았는가
2	수능 반영 방법	지정 과목이 적혀 있는가
3	가산점	특정 과목에 몇 % 더해 주나
4	탐구 인정 범위	사탐·과탐을 다 받는가

3번이 잘 안 보이는 자리입니다. 지정이 없어 「되는구나」 했는데 **가산이 붙어 실제로는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산은 대개 「**미적분·기하 응시자에게 수학 점수의 ○%**」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몇 %인지와 무엇에 붙는지**를 보십시오
— 수학 점수에만 붙는지 총점에 붙는지에 따라 무게가 크게 다릅니다.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앞 편에서 다룬 **환산점수 계산**에 가산을 넣어 보시면 됩니다. **가산을 넣은 값과 안 넣은 값을 견주면** 손해가 얼마인지 숫자로 나옵니다.

짐작하지 마시고 계산하십시오. 요강에 식이 다 적혀 있습니다.

출처: 각 대학 정시 모집요강. 가산 방식과 비율은 대학·학과·연도마다 다릅니다.

04 · 그래서 무엇을

판단하는 차례와 점검표

차례	물을 것	답에 따라
1	지정이 있는가	있으면 못 씁니다
2	가산이 있는가 · 얼마인가	계산해 봅니다
3	가산을 넣어도 쓸 만한가	숫자로 답이 나옵니다
4	그 전공을 4년 다닐 수 있는가	여기가 마지막 관문입니다

4번을 건너뛰지 마십시오. 1~3은 계산이라 답이 나오지만, 4번은 계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4년을 정하는 것은 4번입니다.

교차지원을 생각할 때 확인하실 여덟 가지

☐ 정시 요강 을 봤는가 — 수시 요강이 아니라

☐ 응시 과목에 지정 이 있는가

☐ 가산점 이 붙는가 · 몇 %인가

☐ 가산이 수학에만 붙는가 총점에 붙는가

☐ 탐구 를 사탐·과탐 다 받는가

☐ 가산을 넣어 환산점수를 계산 해 보았는가

☐ 계산해도 쓸 만한 자리 인가

☐ 그 전공을 4년 다니고 싶은가

첫째를 특히 보십시오. 수시와 정시는 요강이 다릅니다. 수시에서 제한이 없어도 정사에서 지정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차지원으로 한 단계 올려 가자」는 권유를 조심하십시오. 점수 계산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에 4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자주 보는 것은 1학년에 「내가 왜 여기 있지」가 되는 경우입니다. 점수가 아까워서 쓰는 원서보다 다니고 싶어서 쓰는 원서가 3년 뒤에 남는 것이 많습니다.

05 · 자주 묻는 것

교차지원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교차지원이 해마다 유리한가요?

해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유불리는 그해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차이에서 나옵니다. 그건 누가 어느 과목에 몰렸는지에 달려 있고, 시험이 끝나야 압니다.

그리고 대학이 조정합니다. 한쪽이 유리해지면 다음 해에 가산이나 지정을 넣는 대학이 나옵니다. 유리함이 오래 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교차지원이 유리하다」를 전제로 과목을 고르지 마십시오. 앞서 다룬 대로 내가 잘 보는 과목을 고르는 것이 언제나 확실합니다. 교차지원은 성적이 나온 뒤에 판단할 일입니다.

Q. 교차지원으로 들어가면 수업을 못 따라가나요?

전공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인문·어문 계열은 대체로 괜찮습니다. 고등학교 과목과 대학 전공이 이어지는 정도가 약해서 누구나 새로 시작하는 면이 있습니다.

상경 계열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제학과 경영학에 수학이 많이 쓰입니다. 오히려 미적분을 본 학생이 유리한 자리입니다.

반대 방향(확통·사탐 → 자연계)은 훨씬 어렵습니다. 공학·자연과학은 미적분이 1학년부터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지정으로 막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갈 수 있는지는 그 학과 1학년 교육과정을 보시면 대략 압니다. 수학 과목이 몇 개인지 세어 보십시오.

한 줄로 남기면

교차지원 = 되는가(지정) · 손해인가(가산) · 다닐 만한가(4년) 셋으로 정합니다. 앞의 둘은 계산이고, 마지막은 계산이 아닙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공개 요강 집계와 제도 설명을 정리한 것입니다. 정시 요강은 수시와 따로이며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정·가산은 대학·학과·연도마다 다르니 반드시 정시 요강을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유불리를 예측하거나 특정 선택을 권하지 않습니다.